

KOICA 직원 타 원조기관 방문 결과 보고

I. 원조 현장 중심화 실행방안 (MPI 및 타 원조기관 방문 결과 보고)

KOICA 본부 직원 해외사무소 OJT실시의 일환으로 베트남사무소에서 OJT중인 김현원 직원이 OJT일정 중 “원조 현장중심화 실행방안 모색” 관련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및 타 원조기관을 방문, 면담을 실시한 바 그 결과를 보고함.

1. 면담실시 개요

- 면담기관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JICA, SIDA, DANIDA
- 면담일시 : 2006년 9월 20일 ~ 28일
- 참 석 자 : 베트남 KOICA사무소 최문정 부소장, 김현원 직원
- 면담주제 : 원조 현장중심화 실행방안

2. 면담 주요내용

가. MPI(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 면담자 : Mr. Pham Hung Vinh, MPI 국제경제관계국 한국원조담당과장
- 면담일시 : '06.9.20 오후 3시, MPI 회의실
- 면담내용
 - 주재국 기획투자부는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임무로 5개년 개발계획,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계획 실행에 필요한 자원 중의 하나로서 ODA를 조정 총괄하여 국가발전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개발계획의 구체 사업내용은 지방정부나 타 부처의 요청에 근거하여 수요 리스트를 만들고 지역과 섹터를 감안하여 MPI에서 사전검토를 하며, 공여국들과 정책대화를 통

해서 사업을 선정함. 사업수요리스트(ODA 수원희망 사업리스트)는 매년 반기별로 열리는 원조공여국회의를 통해 원조공여국들과 공유함.

- 사업선정 시에 감안되는 우선순위는 사업의 긴급성, 해당 프로젝트의 준비상태, 공여국들의 국별지원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MDGs, VDGs, 파리선언, 하노이 선언 외 개발 관련 이슈들은 국가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MPI에서 조정하며 국가개발계획을 근간으로 ODA 사업을 조정 총괄하고 있음.
- Vinh 과장은 한국 역시 파리선언 및 하노이 선언의 서명국으로서 베트남 국가개발계획에 부합하는 원조지원을 약속 한 바 ODA사업의 언타이드화가 확대되고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ODA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함.
- 원조공여국과의 고위급정책대화(High Level Consultative Meeting 혹은 Policy Dialogue)는 보통 년 1회 정도 실시되지만, 실질적인 실무급 협의는 수시로 일어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은 베트남 내 해외사무소, MPI, 그리고 각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해외사무소에 적절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경우 실무급 협의가 의미가 없으며 현장중심의 원조수행이 요원해 질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함.

나.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면담자 : Mr. Nagase Tomonori JICA 하노이 사무소 총무담당 부소장

Ms. Tran Nguyet Anh Assistant Program Officer

Mr. Nakayama Ryuji JICA 호치민 분사무소장

Mr. Nakamura Yoshikatsu 호치민 분사무소 프로젝트 형성자문위원(전 간터지역 봉사단원)

■ 면담일시 : '06.9.22 오전 11시, JICA 하노이 사무소,

'06.9.25 오전 10시, JICA 호치민사무소

■ 면담내용

(1) JICA 하노이사무소

- 2004년부터 오가타 JICA 이사장은 현장중심 원조사업실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직 및 업무절차 개혁을 추진해 옴. 2000년 베트남 국가지원계획(CAP: Country Assistance Program)을 만든 이후 2004년 베트남 내에서 TF를 구성하여 새로운 CAP를 작성하였음.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권의 분권화도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사업결정은 동경 본부를 통해 외무성과 관련부처에 소관으로 남아

있는 바 한계가 있음.

- 지방정부 및 부처들로부터의 개별 사업요청은 실무협의를 진행하더라도 MPI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채널을 일원화 하고 있음. 5월-6월 사이 모든 사업요청서를 MPI가 취합하고 사전 검토 후 일부 사업을 JICA에 요청하면 6월말에서 7월 말 경 해외사무소 의견을 포함하여 본부로 사업계획안을 전달하는 방식임. MPI와의 공식적인 정책대화는 일년에 한번 이루어지고, 개별 사업담당자들은 실무급 협의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음. 공관, JICA, JBIC이 함께 모여 ODA 월별 회의를 개최하여 협력해 나가고 있음.
- 현재 JICA에서도 웹 베이스의 원조관리시스템 재구축을 추진 중임. 기존에는 사업수요, 프로젝트, 전문가 및 봉사단 관련 데이터베이스들이 개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연계성 및 활용도가 낮았으며 현재 통합시스템 구축작업이 진행 중임

(2) JICA 호치민 분사무소

- 호치민 분사무소는 2001년 신설되어 현재 JICA직원 3명과 베트남 현지직원 3명 총 6명이 근무 중이며, 남부지역 프로젝트와 봉사단원들의 관리 및 신규 사업발굴의 임무를 수행 중임. 주로 미개발지역에 대한 사업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 달에 2-3회

정도 지방성을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고 있지만 남부지역 자체도 워낙 넓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문협회는 쉽지 않음을 설명함.

- 내년부터 그 동안 발굴한 기술협력 프로젝트(주로 농촌개발 분야)들이 시작될 예정임. 한편 JBIC과의 통합과 관련하여 대규모 차관 프로젝트와의 연계도 확대될 전망이다. 호치민 내의 JBIC 사무소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례로, JBIC에서 호치민시 지하철 도입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부분에서 JICA와의 협력이 검토되고 있음.
- Nakayama 호치민 분 사무소장은 KOICA의 베트남 사업현황에 대해 특히 팀제 봉사단 활동 및 시니어 봉사단원 사업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KOICA 사업 규모에 비해 전체 임직원 규모가 매우 작은 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함. JICA의 경우 현재 전체 1200명 정도의 인원이 있으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본부에서도 현장중심화와 관련하여 해외사무소 인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음을 언급함.

다. SIDA(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 면담자 : Mr. Lennart Nordstrom 개발협력

담당 공사

Mr. Mats Bengtsson 1등서기관

■ 면담일시 : '06. 9. 27 오후 3시 30분 하노이
스웨덴 대사관

■ 면담내용

- 스웨덴의 ODA 국별지원전략은 5-6년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만들어지는데 국별지원 전략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원국과의 협의 등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됨. 2004-2008년 베트남 국별지원전략이 2003년 말 채택되어 내년 1월에 중간 점검 예정임.
- 스웨덴은 베트남과 역사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MPI의 담당관과도 매우 좋은 협의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어 국별계획 수립 시에도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서 양측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베트남 측에서도 반부패(Anti-Corruption)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신뢰도가 높음.
- Hansen 공사는 스웨덴의 경우, 현장의 결정권한은 큰 편이며 이를통해수원국 및 타 공여국과의 원조 조화가 가능함을 강조함.
- 한편 스웨덴 원조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은 해외사무소가 담당하고 있지만 본부의 지역담당부서와 섹터(분야별)담당부서와의 협업 및 역할 분담에 있어 이상적인 균형점을 찾고 외부 전문가를 적절히 활용하는 부분이 항상 가장 어려운 면이라고 언급하고, 이러한 균형점 도출을 위해 성과중심적 원조

수행(output 및 outcome 중심의 관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본부와 현장과의 지식 공유를 위해서 현장에서는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의 보고서 작성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시스템적으로는 내부의사소통을 위한 SIDA Inside 라는 인트라넷을 활용하며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재무관리시스템도 사용하고 있음. 해당 년도의 국별 지원 계획 금액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입력하고, 본부에서는 전체 계획을 조정 관리함.

라. DANIDA(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 면담자 : Mr. Peter Lysholt Hansen 덴마크 대사

Ms. Nguyen Kim Quy, Programme Officer

■ 면담일시 : '06.9.28 오전 10시, 덴마크 대사관

■ 면담내용

- 덴마크의 경우 현장중심 원조수행을 위해 의사결정권을 전적으로 사무소에서 가짐. 사무소가 사업 기획과 수행을 책임지며 본부는 사업검토부분만을 담당하게 됨. 5년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에 대해 연간 실행계획을 세우게 됨. 5년마다 사업계획 수립 시에 사업발굴은 사무소에서 담당하게 되고 해당 계획을 본부에서 검토 후 의

- 견을 보내면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 DANIDA Board에서 승인 후 실행하게 됨.
- 연간 실행계획은 수원국 측과 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사업 구체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함.
 - 본부에서는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review mission을 1~2년에 한번씩 현장에 파견함.
 - 현장중심의 사업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온라인과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음. (www.um.dk/da 참조, Aid Management Guideline 외.) 한편 Project Database인 PDB를 구축하여 Financial Management System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음.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담당관은 사업 계획 시부터 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있으며 해당 정보는 본부 및 타 해외사무소에서도 웹을 통해 공유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또한 예산집행실적이 연계되어있어 약정 대비 집행실적 조화가 가능함.
 - 덴마크의 경우 ODA사업을 덴마크 외교정책 협의의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으며 원조공여국 회의 및 이슈별 TF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수원국과의 정책대화는 본부에서 방문한 대표단이 참석하는 고위급 대화가 년에 1회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사전에 한 달에 1-2회의 수원국과의 면담을 실시하고 있음.
 - Hansen 대사는 베트남의 경우 반기별로

이루어지는 원조공여국회의 이외에 UNDP에서 개최하는 월별 공여국그룹포럼, 비공식적인 원조 공여국 대사 모임이 월별로 이루어지며, 이외에도 EU, 금융기관, 지역별, 이슈별 그룹 모임 등 다양한 차원의 원조관계자 회의가 있음을 설명하며 현장중심화를 위해서는 의사결정권 이양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며 원조 조화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여국들 간의 대화와 협력이 절실함을 강조하였음.

- 또한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국별 프로그램화 시도에 대해 매우 의미 있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을 언급하였으며 KOICA에서 구축 중인 통합원조관리시스템 관련, DANIDA 역시 원조관리시스템 구축에 10년 이상을 소요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며 현행 시스템을 정착시켜 온 바 필요시 코펜하겐 본부를 방문하여 볼 것을 권유함.

3. 관찰 및 건의사항

- 원조 효과성 및 원조 조화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화를 위해서는 의사결정 권한의 분권화(decentralization)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관찰함. 원조 총괄기관 및 현장 원조조직 양측 모두에게 사업결정권한 없는 사업발굴 및 계획 수립은 원조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분권화와 중앙집중화의 균형을 위해서 현장

중심화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로 현장에서 공통적인 절차를 따르되 사업선정의 주도적인 역할이 충분히 보호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장과 본부와의 역할 분담 및 협업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타 원조기관과의 원조조화 및 현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식/비공식 원조공여국 회의 및 모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한국의 비교우위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회의 참여 및 원조 관련 월별 대사 모임에 참여를 강화하고 수원총괄 기관 및 지방 정부와의 고위 정책대화 이외의 실무 협의 채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관찰되었음.

- KOICA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통합원조관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상기 문제점을 고려하여 원조의 현장중심화라는 정책방향을 정보시스템적으로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건의함.

- 아울러, 당국은 국별계획 및 중기전략계획 수립시 수원국의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원조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MPI 원조담당관과의 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ODA 협의체를 활성화하며 원조공여국회의 등에 적극 참여해 나갈 예정임.

[자료: 주베트남대사관]

II. JICA, UNOPS, UNV, Hellenic Aid, SDC 방문 결과 보고서

2006.11.12~12.9일간 KOICA 스리랑카 사무소에서 OJT중인 황재상 직원의 타국 원조기관 방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JICA

가. 방문개요

- 방문일 : 2006.11.28 09:00~12:00
- 면담자 : Mr. Sanada
(Deputy Representative),
Mr. Iida (Assistant Director),
Mr. Yamakaz (Assistant Director)

나. JICA 스리랑카 사무소 및 사업 현황

- 현재 일본의 대 스리랑카 ODA는 차관(JBIC 소관), 기술협력(JICA소관), Grant Aid (외무부 소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정부는 향후 2년 내에 JBIC의 차관(유상원조)부문을 분리, JBIC에 병합시켜 유무상 원조를 모두 JICA가 관할토록 할 예정임.
- JICA 스리랑카 사무소의 인원은 총 14명이

며 다음 6개 분야를 중심으로 40여개 사업을 추진 중임

- 인도적 지원 및 재건지원분야 : 지역공동체 농업개발 및 재건, 기초보건의료시설 지원 등
- 경제 인프라 개선 분야 : 교량건설, 도로운영 자문, 고속도로 실시설계, 교통안전 마스터플랜 작성, 전력계획 자문, 고체폐기물 처리 등
- 외화 획득 증진 분야 : 산업발전 자문, 기술대학 개선, e-learning 기술교육 등
- 빈곤완화(I)분야 : 농업, 목축업, 어촌건설, 관개 및 수자원 관리 자문, 지역 생활환경 개선, 농작물 생산성 개선 등
- 빈곤완화(II)분야 : 의료행정 자문, 보건체계 강화 마스터플랜 작성, 직업훈련 확대 등
- 재해관리 분야 : 쓰나미 피해지역 재건, 분쟁지역 공동체 개발, 재해관리 자문 등

- JICA는 현재 스리랑카에 약 50여명의 해외봉사단(JOV)을 파견 중이며, 초등교육, 장애우 교육, 지역사회 개발, 보석 세공 기술전수 등의 분야에서 활동 중임.

- JICA는 일본의 NGO를 통한 협력사업을 수행 중이며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음.
 - 매년 각 해외사무소별 수요조사 (분야별 우선순위)
 - JICA 본부는 본사 및 지방지사(12개)를 통해 각 분야에 대한 NGO들의 사업제안을

접수, 사무소 의견을 참고하여 대상 NGO 결정

- 해당 NGO팀을 해당국가에 파견하여 사무소와 함께 사업 세부 사항 및 현지 Counterpart 결정, M/M 등 체결
- 해외사무소는 NGO들의 사업수행 과정을 감독하며, 분기별 보고 접수 및 평가 실시

“Global Network”(GN)라는 별도의 독점사용 통신망으로 연결

- GN을 통해 JICA 해외사무소는 JICA 본부의 모든 전산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프로젝트 관리, 예산관리, 회계처리 등 본부와의 모든 업무를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음.

다. Country Program(CP) 수립

■ JICA는 일본정부의 ODA현장과 국별 Policy Paper에 의거, 국별 CP를 수립

- 스리랑카 CP는 기초 인프라 건설과 낙후된 북동부 지역의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CP 수립과정

- 스리랑카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예산안 및 장기개발계획, 수요 등을 검토
- 대사관, JICA, JBIC의 담당자들이 협의하여 초안 작성 후 대사관이 본국 외무부에 제출
- 외무부는 예산 및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초안을 수정한 후 대사관에 송부
- 대사관, JICA, JBIC의 담당자들이 수정된 초안을 검토한 후 최종본 수립

■ 화상회의 시스템

- JICA 해외사무소(말라위 및 동티모르 제외)는 본부 및 여타 해외사무소와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동 시스템을 국제기구와의 화상회의, 수원국 연수생들에 대한 원거리 교육 등에도 활용하고 있음.

※ 동 화상회의시스템은 GN 또는 ISDN 이 상급의 인터넷 회선을 통해 운영

■ 자금운영 및 예산관리

- JICA 본부는 매달 사무소의 자금운영계획에 의거 운영자금을 송금하며, 사무소는 GN을 통해 본부 예산회계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예산집행의뢰서와 예산집행결의서를 작성, 집행하므로 별도의 예산집행 현황보고 등은 불요함.

라. 사무소 운영

■ 본부와의 전산망

- 모든 JICA 해외사무소는 JICA 본부와

마. 파견인력 안전관리

■ 안전관리 업무분장

- 사무소장 및 안전관리 담당자가 전체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봉사단원의 안전은 봉사단 코디네이터, 전문가 및 컨설턴트의 안전은 각 담당자가 관리
- JICA 본부는 별도의 안전관리팀을 운영하며 각 지역별 안전관련 정보를 해당 사무소에 제공
- ※ 스리랑카 내 위험지역에 대한 개인적 용무의 여행은 금지되어 있으며 공무출장일 경우는 본부 또는 사무소장의 승인 필요

■ 현지인 안전관리 자문관 활용

- 안전관리 자문관(전직 경찰)은 안전담당자에게 관련 정보 및 자문을 제공하며, 신규인력 파견 시 현지답사, 주거지 안전 확인, 인근 경찰서, 군부대, 지방정부 등에 안전보장 협조요청을 수행

■ 비상사태 발생시 안전관리

- 모든 파견인력에게는 비상연락용 휴대폰을 지급하며, 휴대폰 불통시를 대비하여 콜롬보 내 파견인력에 대해서는 휴대용 VHFS 송수신기(30Km 이내 통신가능), 지방출장인력에게는 위성휴대폰과 HF 송수신기(차량부착, 장거리 통신가능)을 지급
- 비상사태 발생시는 휴대폰 및 SMS를 통해 파견인력의 안전을 확인하며 사전에 교육한 루트를 통해 인원 후송
- 직원 및 봉사단원, 전문가 등 모든 파견인력

이 긴급후송회사 서비스 가입

2. UNOPS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가.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06.11.30 2:00~4:00
- 면담자 : Mr. Rainer Frauenfeld (Country Director)

나. UNOPS 스리랑카 사무소 및 사업 현황

- UNOPS는 유엔 산하의 프로젝트 수행 전문기관으로 유엔기구, 기타 국제기구, 양자간 원조기관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업체선정 및 계약, 프로젝트 관리 등을 대행함.
- UNOPS 스리랑카 사무소의 인원은 60명 (현지인력 50명)으로 인력들은 대부분 계약직 엔지니어이며, 사업현장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UNOPS 사무소는 영구 상주 기관이 아니므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되고 추가 사업이 없을 경우 철수 가능함.
- UNOPS 스리랑카 사무소는 건물건축, 교량 건축, 식수공급 및 농촌접근성(rural area access) 개선 등 4개 부문의 사업을 EU 등의 위탁을 받아 수행 중임.

- UNOPS는 국제입찰, 프로젝트 공정관리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원조기관, 수원기관, 시공업체 및 지방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를 실제 수행하거나 감독관리하고 있음.
- UNOPS와 개발원조기관들의 협력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신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해당 위탁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함.

3. UN 봉사단 (UNV)

가.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05.11.15 02:00~03:00
- 면담자 : Ms. Okama Brook (Program Coordinator)

나. UNV 단위 관리

- UNV는 봉사활동의 facilitation, promotion, networking & recognition이라는 4대 전략 아래, 국제 봉사단원과 해당 국민 봉사단원을 파견 중임.
- UNV는 봉사단원들에게 “봉사단”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UNV 본부는 전산망에 등록된 4,000명 이상의 국제 자원봉사지원자들의 지원서를 검토, 단원을 선발하며 해당국가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사업대상지에 파견

- UNV 단원들은 온라인을 통해 반기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기관과 UNV 담당자에 의해 평가를 받음.

- UNV 스리랑카 사무소는 각 지방의 안전담당 코디네이터들에게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단원들에게 매일 안전정보 메일을 발송 (Daily security report)

- UNV는 이러한 안전관련 정보를 여타 기관의 봉사단원들과 공유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비상시에는 미리 지정된 안전장소로 대피하여 긴급후송회사(Van Breda)를 통해 후송조치

4. Hellenic Aid

가.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06.11.24 10:00~11:00
- 면담자 : Mr. George (Representative)

나. Hellenic Aid 및 사업현황 소개

- Hellenic Aid는 그리스 정부의 대외부상원조 전달기구로 지난 2000년 3개 부처에서 분산

수행하던 무상원조 사업을 통합 수행하기 위해 창설되었음.

– 총 3개 부서 60여명으로 구성

- 그리스 정부의 ODA는 주로 발칸지역에 집중하고 있으며, 스리랑카 사무소는 남아시아 지역에 최초로 개설된 Hellenic Aid의 사무소임.

– Hellenic Aid 스리랑카 사무소는 인도주재 그리스 대사관의 관할 아래 있으며, 신흥 원조기관으로서 사업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실험적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Hellenic Aid는 주로 그리스의 NGO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간 합의를 바탕으로 해당 NGO와 관련부서가 개별사업에 대한 MOU를 교환.

– 현재 Hellenic Aid의 주요사업은 학교 개선, 보건소 건설, 어항 및 어시장 건설 등이 있음.

5. 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가.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06.11.28 14:00~15:00
- 면담자 : Mr. Benil Thavarasa (National Program Officer)

나. SDC 사무소 및 사업현황

- SDC는 스위스 외교부 산하의 무상원조기구이며, 100% 스위스 정부의 출연금에 의해 운영됨. 스위스 정부는 쓰나미 피해 이후 스리랑카에 지원을 시작함.

- SDC 스리랑카 사무소는 현재 약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프나와 마타라에 지방 사무소를 운영 중임.

- SDC의 조직은 인도적 지원부문과 개발협력 부문으로 나뉘어 있으며 인도적 지원 부문은 쓰나미 피해지원 및 북동부 지역 지원, 개발협력부문은 농업개발 및 직업훈련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스위스 대사관의 인권담당 및 평화정착 담당부서와 SDC의 인도적 지원부문 및 개발협력 부문은 스리랑카 내 인간존엄성 보장이라는 최종목표를 위해 단일 중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 SDC는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북동부 지방의 지원에 초점을 맞출 계획임.

[주스리랑카대사관]